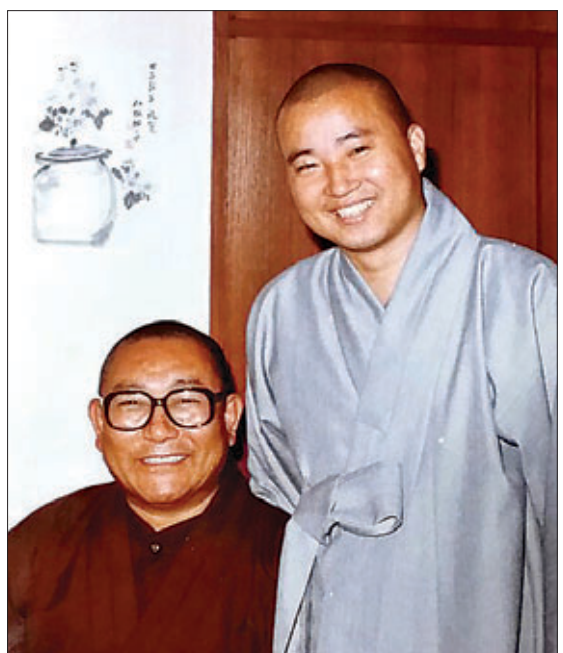




법산 스님은 ... 1945년 경남 남해 출생. 동국대 인도철학과 석사. 동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보조선의 연구>로 대만 중국문화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했다. 유학 시절 대한불교 흥법원을 설립해 해외포교를 실천했고, 교수 임용 후에는 학계 뿐 아니라 조계종 교육위원장 등을 맡아 도제양성에 앞장섰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정각원장, 불교대학장, 불교문화연구원장, 한국선학회장, 한국정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보조사상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국에서 동국대 교수가 돼서도 가끔 법문을 하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연이 포교에 대한 뜻을 함께 하며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의 길로 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이야말로 승려가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님은 무진장 스님을 성철·법정 스님에 버금가는 근대의 선지식으로 꼽을 만 하다고 말했다. 조계사에서 40여년을 포교원력 하나로 지내며 자신은 가진 것 하나 없이 간 그 삶은 승려로서 본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성철 스님은 수행자로서 당대의 사표가 되신 분이요, 법정 스님은 사회에 불교의 가르침을 무소유를 통해 알리신 분입니다. 무진장 스님도 그 두 어른에 못지 않은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지녔어요. 무진장 스님은 가진 것 없이 주지도 하지 않았고, 정화 당시부터 오늘 날까지 40여년을 조계사를 떠나지 않으며 오로지 대중을 위한 설법만을 했어요. 불교계의 온갖 분쟁 속에서도 오로지 부처님 말씀, 정법만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시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법을 남기는 것도 꺼리셨지만 남아있는 것이 조금은 있습니다. 차차 설법집 등 자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법산 스님은 무진장 스님이 그랬었던 것처럼 조용히 동산의 버팀목이 되어줄 계획이다. 지금까지 동산반야회가 스스로 잘 꾸려온 만큼 스님은 한 달에 한번씩 첫 번째 토요일에 직접 법회를 진행하며 수행과 학문 부분에서 힘이 되려고 한다.



1984년 대만 흥법원에서 무진장 스님(사진 왼쪽)과 법산 스님. 무진장 스님은 매년 흥법원을 찾아 유학생들에게 법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선 불교통사’ 역주 8년간 8권 펴내  
법산 스님은 12월 10일부터 진행되는 한마음선원의 대만연수도 인도한다. 이 또한 신도교육의 일환이다. “10년 전 대행 스님이 계실 때부터 대만 연수를 가기로 했는데 못 갔던 것을 이번에 가게 됐어요. 1982년 대행 스님이 대만에서 세미나를 하며 인연을 맺었는데 그 이후 한마음선원에서 세미나를 할 때는 대만 성운 대사와 일본 나가무라 하지메, 박성배 교수 등이 모두 모여 불교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마음선원 스님들뿐만 아니라 신도회 사람들도 대거 가는데, 대만에서 또 다른 점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법산 스님은 신도들에게 불교의 새로운 경계를 맞보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도 동원력이 최고인 곳 중 하나가 한마음선원인데 그 이유는 신도 개개인이 발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음선원에서는 주처정리 등 자질구레한 선원 일을 돕는 이들 중에 대학교수들이 17명이나 됩니다. 학문적으로 일각을 이룬 이들이 마음을 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동안 법산 스님은 <말 있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문답으로 풀어보는 불교입문>,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 등의 저서를 통해 재가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왔다. 학자로서는 보조사상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선학회, 인도철학회, 한국정토학회, 아태불교문화연구원 등을 이끌며 불교학 지평을 넓혔다. 특히 불교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조선불교통사’ 역주팀을 8년간 맡아 8권으로 펴내기도 했다. 2012년 동국대 교수를 정년퇴임하고 법산 스님은 지리산 일대 선방에서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명색이 선학과 교수로 선종사를 전공했는데, 그년부터 실참 수행 없이 이론은 모래알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저녁으로 수행하고 금강경 10만독을 발원했지만 정년 이후에는 한 생각을 놓고 가서 수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지요.” 사실 스님은 공부하는 틈틈이 통도사 극락암에서 안거에 들었다. 정년퇴임하기 4년 전부터 연구원 등에 실상사 백송사에서 안거에 들기도 했다. 현재는 실상사 백장암에서 안거에 드는데 당시 백송사에서 인연을 쌓은 도반 스님들과 같이 수행하고 있다. “젊은 스님들과 어울려 도반으로 지내니 참 좋아요. 스스럼없이 지내며 배우는 점도 많습시다. 내가 그동안 느끼지 못한 부분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 동안 출세가 후학들을 양성하며 함께 수행하는 길을 걸겠다는 스님의 모습에서 추운 겨울 마시는 차 한잔의 따듯함이 전해져왔다.

### 전법일기

## 가슴 깊이 부처님 느끼게 하는 것이 전법

### 비로자나국제선원을 연 이유

비로자나 국제선원은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해 있다. 내가 이곳에 선원을 만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의 수행을 가족들과 나누기 위함이었다. 진정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음 수행을 가족들과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가족들이 모두 불자라고는 해도 신심이 그리 깊지 않아 불교를 생활 깊숙이 느끼게 하고 싶었다. 부모님만 빼고 모든 7남매가 서울에 살며 그중 첫째와 둘째는 서대문구에 산다. 거기에는 식구가 많으니 조카만 해도 12명이다. 나름대로는 매주 일요일에 법회를 열어 삶에 지친 그들에게 마음속 평화를 찾게 하고 싶었던 것이 나의 의도였다. 어느 날 도반 스님과 무악재역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누군가 “스님~”하고 반갑게 부른다. 돌아보니 첫째 조카다. 같은 동네에 살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아이를 만나는 것은 고작 일 년에 한 두 번이다. 귀엽기만 하던 꼬마가 어느덧 자라 이번 달 말에 결혼을 한다고 한다.

“퇴근길이니?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힘든 일은 없어? 이모들에게 혼수품 하나씩 해 달라고 해. 모두 너를 돕고 싶어 하더라.”

“괜찮아요. 혼수품은 이미 카드로 샀어요. 카드 값만 갚으면 되요.”

“그래? 얼마가 안도와 주시니?” 했더니 “아니요. 제 힘으로 해야지요. 어떻게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요.” 하며 빙긋 웃는다.

기특하다. 문득 35년전 우리가 자랄 때가 생각한다. 딸 여섯에 어렵게 아들 하나를 얻으신 부모님은 교육열이 뜨거운 분들이었다. 입학금이 없어서 마음 고생을 했던 아픈 추억을 가지신 아버지는



그림·박구원

우리에게 공부는 하고 싶는데 까지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합격만 하면 학자금은 대주시겠다고 선언하셨다. 하지만 당시 지방공무원인 아버지의 월급으로 모두를 대학까지 보낸다는 것은 어린 우리가 보아도 어려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우리 딸이인 대장은 여동생 다섯 명과 남동생 한명을 불러 앉혀놓고 이런 제안을 하였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많아서서 모두 공부도 시키고, 시집 장가를 보낸다는 것은 힘드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규칙을 정했어.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부모님께 오십만원씩 드리고 결혼자금만 벌어서 갈 것. 그리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부모님께 받은 학자금을 모두 갚고 결혼자금까지 벌어서 결혼할 것.

단, 학자금을 갚지 못하면 결혼은 할 수 없어. 그래야 그 돈으로 다음 동생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모두 이 규칙을 지켜야 해.”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나는 그런 대장이 참으로 자랑스러웠다. ‘어떻게 저런 좋은 생각을 했을까? 확실히 대장은 다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재미있다. 겨우 스무 살 된 아이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교 동생들을 쪼르르 앉혀 놓고 그런 설득을 하다니! 우리는 어린 마음이지만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는 대의 명제 앞에 서로 그 약속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다.

각자는 스스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열심히 살았다. 우리의 명제는 부모님의 도움없이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각자의 살람 살이를 챙기면서도 진심으로 서로를 도왔다. 그래서 나 또한 출가할 때 그동안 받은 대학학자금 삼백만원씩을 갚고 당당히 출가했다.

출가자로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함에 늘 죄송하지만 그나마 마음이 가벼운 것은 그나마 학자금을 갚아서 인 것 같다. 35년 전에 우리에게 그랬듯 우리 대장은 자기 자식에게 까지 그런 교육을 시켰던 것이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는 부모보다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는 부모가 현명하다. 당시 어린 우리가 그런 결정을 자발적으로 한 것은 부모님의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포교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모습보다 수행의 향기가 몸에서 풍겨 나올 때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무언의 가르침을 받는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 연꽃 같은 정수기, 시걸포!

연꽃이 내 몸과 마음, 정신을 정화하듯 시걸포는 내 몸에 물을 정화합니다

www.seagull4.co.kr |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 한국총판 (주)이엔알인터내셔널 | 고객문의 080-007-0980